전주 · 완주 상생협력사업 지속 발굴 · 추진

지난 5월 5차 협약 이후 한달만에 7차 협약식… 공공시설 할인혜택 · 치유숲 조성 · 금융중심지 지정 등 3개 사업 추가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력 사업이 상생의 보폭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지난 5월 6차 협약 후 한 달만에 세 가지 사업을 추가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전북도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 7차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사업은 먼저 '전주·완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상호 적용 확대'이다. 각 지역의 주민들에게 한정해 제공하던 공공시설 입장료 등 이용료 할인혜택을 상호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시범적으로 동물원, 경기전, 전주자연생태관, 슬레미박물관, 고산자연휴양림 등 5개 공공시설의 이용료 할인율을 전주시민, 완주군민 구분없이 똑같이 적용하기로 하고 지속적으로 대상시설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양지역 주민이 행정구역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달리 적용받는 혜택을 상호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학산 치유숲 상생숲길 조성사업'이다. 전주시 서서학동 흑석골과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를 연결하는 보광재 옛길(전주미래유산 39호)을 활용해 학산 치유숲 조성과 상하보 마을 상생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이으로 치유센터, 숲체험장 등 신림치유시설과 데크로드, 야외쉼터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전주에서 완주로 이어지는 상생숲길 정비를 통해 양 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세 번째는, '완주·전주 혁신도시 금융기관 유치 공동대응'이다. 혁신도시의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영본부를 중심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북도를 중심으로 전주, 완주가 협력체계를 갖추고 금융·자산운용분야 국책기관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26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주·완주 상생협력 사업 7차 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협약식을 갖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7차 상생협력 사업이 양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에 체감도 높은 사업이 포함돼 있어 큰 의미가 있다"며, "아울러 실효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협약된 사업들도 내실있게 관리함으로써 양 지역주민 편익과 공동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7차 사업들은 전주·완주 주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양 시군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양 지역주민을 위한 숲 치유 공간을 조성하는 등 비교적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도 포함돼 있다"면서, "우리 전주와 완주는 양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생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끊임없이 고민해서 향후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방면의 생활밀착형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과 전주시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발굴하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7차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시·군 경계에 얽매이지 않은 채 양 시·군 주민이 문화생활을 누리고, 완주·전주 혁신도시에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행정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김 지사, 물놀이 안전 중요성 거듭 강조

휴일에 119안전체험관 긴급 방문… 프로그램 · 시설 점검

"국민의 생명 · 재산 지키는 119대원들 자랑스럽다" 격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119안전체험관에서 가족단위로 물놀이 안전체험을 하는 체험객들과 어우러지며 안전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2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25일 임실군에 소재한 전북119안전체험관을 방문해 물놀이 안전사고 관련 프로그램과 체험시설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어린이들을 동반한 가족단위 체험객들과 함께 급류체험, 선박탈출체험, 생존수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대기시간을 활용해 어린이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하는 대화를 나눠 동반한 부모들을 흐뭇하게 만들었으며, 어린이들에게는 "친구들도 물놀이 안전체험을 많이 다녀가도록 전해 달라"고 독려했다.

김 지사와 체험을 함께 한 김민수씨(40, 전주시 송천동)는 "매년 여름휴가를 가기 전에 119안전체험관에 와서 체험을 해본다"며 "페트병과 돗자리를 던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방법과, 물에서 온몸에 힘을 빼고 누워 물에 뜨는 자세로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요령을 우리 부부와 자녀들이 소방관에게 직접 배우며 몸에 익힐 수 있어 매우 유익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체험장을 일일이 둘러보면서 "휴일도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는 우리 119대원들이 고맙다"고 격려한 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수많은 체험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대원들은 자긍심을 갖고 이 기회를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더욱 국민들에게 심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119안전체험관 물놀이 안전체험은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오전과 오후 2회 교육이 진행된다.

물놀이 안전체험은 워터슬라이드 체험, 익수자 구조 및 선박 탈출 체험 등 8개 체험으로 진행하며, 생존수영은 체온유지, 잎새뜨기 등 4단계 교육과정을 거쳐 수난사고 발생 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시원한 물놀이와 함께 배워볼 수 있다.

도내에서 지난 3년간 발생한 수난사고는 9백 70여건에 달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119안전체험관에서는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 영외 프로그램을 맡기로 했다. 8월 2일부터 10일까지 170여개국의 청소년 2,880명이 방문할 예정으로 재난종합체험, 위기탈출체험, 물놀이 안전체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도, 어린이집 유아 급간식비 지원 확대

일 1000원 급간식비 지원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오는 9월부터 도내 어린이집 유아의 급간식비 지원을 확대한다.

도에 따르면 교육부 주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에 도교육청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은 유치원-어린이집 간 급간식 격차 해소를 위해 재원을 공동부담하고, 어린이집 유아 급간식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전북도는 어린이집 재원아동에게 보다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유아 1인당 일 350원의 급간식비를 지원해왔다.

여기에 이번 선도교육청 선정으로, 9월부터는 어린이집 유아 1인당 급간식비 650원이 추가지원되어 총 일 1,000원의 급간식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설에 관계없이 도내 유아에 일 3,500원의 동등한 수준의 급간식이 제공될 전망이다.

또한,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은 유보통합의 핵심인 아동권익 증진·평등한 보장을 위한 급식비 지원 외에도 교사·학부모 역량강화 추진, 유보통합추진협의회 구성 등 유보통합 성공적 안착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훈 기자

새만금잼버리 진행상황 '꼼꼼하게'

도, 급식 · 의료지원 등 분야별 준비상황 점검

전북도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급식 및 수송, 의료지원 등 각 분야별로 진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잼버리 급식은 아워홈에서 식재료 공급 등 급식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맡아서 책임진다. 아워홈은 대회 급식은 물론 식재료 공급, 매점과 테이크아웃 코너, 푸드트럭 운영을 통해 맛과 영양은 물론 즐거움 등 아워홈만의 글로벌 토탈 푸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급식운영은 크게 참가자 식자재 보급과 운영요원 식당으로 나눠서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자 급식 메뉴는 일반식 33개, 특이식 42개(할랄 21, 비건 21)로 구성했으며, 현재 사전주문시스템을 통해 6월말까지 회원국 단위대별로 사전주문을 접수 받고 있다. 참가자에게 식자재(푸드박스, 10인기준)를 단위대별(40인)로 제공하고, 1일 2회, 조식·중식과 석식은 17개 서브캠프 식자재보급소(냉장컨테이너)에 배송이 이뤄지고, 급식운영사와 급식운영본부의 2차례 검수 이후 참가자들은 식자재를 수령해 조리 취식하게 된다. 식수는 허브별로 식수대를 통해 상수도(계화배수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운영요원에게는 스탭허브 편의시설 내에 3,000석 규모로 운영요원 식당과 조리실을 구축해 뷔페식으로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며, 총 8개(일반·비건 7, 할랄 1)의 배식대를 운영한다. 음식은 한식 22, 양식 15, 아시안푸드 2 종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식음료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해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식재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식중독 신속검사처량 운영 등 식중독 예방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종합상황실 내 식음료 현장상황실을 설치해 현장검식반 및 식중독원인조사반이 활동할 예정이다. 잼버리 수송은 대원관광과 금호익스프레스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송을 책임지게 된다. 특히, 전체 운행차량의 40%정도를 도내 수송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수송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부안까지 참가자 입영 및 퇴영, △14개 시군 영외과정활동 수송, △영내과정활동 셔틀수송(2개 라인, 블루·레드라인)으로 나눠지며 특히, 운영요원의 영내 과정활동 이동 시 자전거와 전기카트를 운영해 친환경 잼버리임을 반영했다.

수송차량 배차·운행관리 및 현장민원 대응을 위해 수송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인천공항 제1 및 제2 여객터미널에 각각 공항헬프데스크를 설치해 해외 참가자 입·출국과 공항 수송 차량 탑승 안내를 지원한다.

또한, 거점휴게소를 운영해 이동 중 응급상황을 지원할 계획이며, 영외과정활동 시 교통안전을 위해 시군 수송상황실도 운영한다.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 교통안전전담반(TF)을 구성해 교통안전 취약구간 발굴 및 개선, 주요구간 교통사고 및 행사로 인한 교통량 증가 시 우회도로 지정 등 교통안전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에서는 세계잼버리 교통대책을 포함한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7월 중 수립해 고속도로 이동 간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지 내 주차장 3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주차장 내·외부에 운영요원을 상시 배치해 안전하게 차량의 진출입을 통제해 나갈 계획이다.

참가자들의 진료 및 건강 관리를 위해 야영장 내에 잼버리 병원(1개소), 허브 클리닉(5개소), 응급의료소(5개소) 등을 설치하고, 정신건강 진료 및 심리지원을 위한 리스닝이어(Listening Ear) 센터(6개소)도 설치, 운영한다.

조직위는 6월 15일 기준 의사 45명, 간호사 106명, 치과의사 3명, 치과위생사 5명, 약사 3명, 응급구조사 12명, 방사선사 2명 등 총 176명을 모집해 잼버리 의료체계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을 확보했다.

또한,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은 완화됐으나, 전 세계 4만3,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임을 고려해, 감염병 유증상자 검사를 위한 영지 내 임시선별진료소와 외국인 확진자 격리시설(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생활관)을 운영한다.

과정활동 안전사고 등 응급상황에 대비해 전북소방본부 후송지원(구급차 10대 상시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잼버리 개최 전까지 분야별 잼버리 준비상황 전반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대비로 안전한 잼버리 성공개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 가정간편식 제조가공업소 위생단속

내달 7일까지 밀키트 등 제조 · 가공업소 50곳 대상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 소비가 급증될 것이 예상되는 밀키트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7월 7일까지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50여개소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부패·변질된 원료사용 여부 △제조가공실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원료수불부 등 법적서류 작성 및 보관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의 경우 원료수불부 등 법적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1인 가구 및 캠핑족 증가로 휴가철 가정 또는 야외에서 간편하게 이용가능한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물 공급 '이상 無'

송수관로 · 계화배수지 건설 등 새만금 상수도사업 추진 원활

잼버리 행사 기간 내 안정적 용수공급 위한 협조체계 강화

전북도는 8월 1~12일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송수관로 설치, 계화배수지 건설 등 새만금 상수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안정적인 용수공급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 성공 개최를 위한 선결과제로, 도는 이번달 6월 중순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6월말에서 7월 중 관로 및 배수지에 시험 통수를 실시해 행사 기간에 원활하게 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행사기간 중 사워장, 급수대 등에 사용되는 수돗물은 한국수자원공사(금강유역본부)에서 추진한 부안댐 광역송수관로 5.8km, 부안군(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한 계화배수지(5,000㎥/일)와 배수관로 2.8km를 지나 새만금 남북2축 도로의 배수관로를 거쳐 행사부지 내 급수 관로를 통해 공급된다.

도는 그동안 안전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안군,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기관별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계화배수지 총사업비 변경 및 송수관로 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원활한 행정절차를 위해서도 함께 대응하고 적극 지원해왔다.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사업계획처장 조재창)의 경우 새만금 용수공급사업 중 잼버리 행사에 필요한 구간을 우선 시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송수관로 5.8km를 조기 완료했다.

또한, 전북도는 잼버리 행사 기간 중에 만일의 단수사고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부안군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는 계화배수지를 통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농생명용지 내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일일 10,000㎥까지 공급함으로써 핵심기반시설 구축 등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새만금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규 도 행정부지사는 "부안군, 한국수자원공사의 적극적 사업 추진과 업무 협조로 배수지 건설, 관로 매설 등 새만금 상수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며, "세계 청소년들이 즐겁게 야영하고 새만금에서 꿈을 펼칠 수 있게 행사 기간내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1면에 이어…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이냐?'

올해 스마트기기 보급 대상으로는 공사립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2학년 등 4개 학년이다. 이와 함께 전주완산초와 곤지중 등 특수학교 및 통합운영학교에는 일괄 보급한다. 다만 국립은 제외된다.

세부적으로는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6만5,377대 및 충전보관함이 보급된다. 초등용 웨일북은 1만7,122대, 중고등학생용 노트북은 4만8,255대다. 특히 내용연수를 고려한 유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6년이고, 베터리는 1회에 한해 전량 교체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송욱진)는 "스마트기기 사업은 전북교육청이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점과, 특정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미리 정했다는 점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는 도교육청이 스마트기기를 일괄구매하면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전북교육청은 학교별로 각자 원하는 스마트기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은성기자